

황종우 해수부 장관, 하계 휴가철 여객선 및 터미널 안전관리 현장 점검

-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 강조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계 휴가철에 대비하여 7월 30일(목) 여수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.

먼저, 황 장관은 여수와 거문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‘하멜호’에 승선하여 항해장비,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장비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, 승선한 섬 주민과 일반 관광객들의 의견도 청취하였다.

이어서,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여객 안전시설과 태풍 등 여름철 기상 대책 등을 확인하고, 터미널 근무자의 폭염 대비 근무여건도 점검하였다.

황 장관은 선사 관계자들에게 “여름 휴가를 섬에서 보내기 위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”라고 당부하고, “폭염으로 힘든 근무여건이지만 터미널 안전사고 예방과 섬 지역 생필품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심상철 (051-773-5730)
		담당자	사무관	송현주 (051-773-5733)